

“丁卯년에 바란다”

丁卯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대내외로 많은 일이 있었던 丙寅年을 뒤로하고,
 이제 兪선생의 활약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모든이들에게 兪선생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희망찬 새해 아침에 기원하면서, '87년 새해에
 거는 기대를 전문지 기자들에게 물어봤다.

국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자



김 효 식

세계보건기구(WHO)가 몇해 전에「2천년대까지 전 인류의 건강을 달성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을 전개한 이래 세계 각국은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과거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의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 아래 일차 보건시

료사업 강화, 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 왔으며 이제 건강이란 개념은 의·식·주에 이은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하겠다.

특히 87년 새해는 지난 20여년 동인

기생충왕국이라는 오명을 씻는데 진력해 온 기생충박멸협회가 발전적 의미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통합을 본 후 첫걸음을 내딛는 해인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클 것이다.

그동안 기생충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아 올린 지식과 자원을 바탕으로 성인병관리를 포함한 예방의학적 보건사업에 쏟는다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우리나라 국민건강 수호에 커다란 금자탑을 쌓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질병관리 측면

보다는 국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업이란 그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눈앞의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거시적 안목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이란 소중한 재산을 물려 준다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필자=간협신보기자)

지속적 홍보사업 전개로 서민 건강복지에 큰 역할 기대



김인완

건강관리협회가 기생충박멸협회의 흡수 통합으로 방대한 조직과 함께 새해부터는 건강관리사업에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보건복지정책 차원에서는 건강관리협회의 기능과 사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몇년 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 및 질병의 초기 발견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협회의사

업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 경제수준에서 국민 대부분은 응급 질환이나 감각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병의원을 찾게 되지만 성인병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은 소홀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 등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병 등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건협의 기능과 사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새해부터

는 사업의 저변확대를 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그동안 건협이 홍보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이 검진을 받아 자궁암 등 질병과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협의 사업기능을 알지 못해 의심스러운 질환과 성인병을 체크해 보고 싶어도 못하는 주민들이 꽤 많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협은 새해에도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건협의 사업기능을 십분 이해하여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반사회나 예비군 훈련장,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안내 팸프렛을 돌린다는지 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약사공론 기자>

「제로」포인트



이 명 재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을 마음은 누구도 경건할 것이다.

우리들은 새해 아침이면 신년을 알차게 보내자는 설계를 하게 되지만 한해가 지나고 나면 마음먹었던대로 되지 않았음을 또 다시 반성하면서 다음 해를 설계하는 것이다.

새해는 88서울올림픽을 눈앞에 둔 한 해로서 국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율은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 현저하

게 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들어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위생환경의 급격한 향상으로 전국민의 기생충 감염율이 8% 이하로 감소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과거의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기생충 감염율 1% 이하 수준까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생충 감염율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지금까지의 노력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 감염율 수준에 도달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국민들의 위생환경이 크게 향상되어 보건의식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생충박멸협회가가업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을통합 시킴으로써 기생충박멸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동안 기협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생충박멸사업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생충 감염율저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년간에 걸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구충제 시장의 수요 증대도 감염율 저하로 부딪

힌듯, 86년 들어 구충제 생산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숫치적인 면에서도 기생충박멸사업의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불과 1년 후로 성큼 다가온 대망의 88올림픽을 맞아 위생환경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 국민보건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아 새해를 맞아 기생충박멸사업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다.

지난 해를 반추하고 내일을 향한 예지를 모아 국민보건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만복이 내려지기를 기원해 본다.

〈필자=약업신문 취재부 차장〉

생활 정보

두부 부서지지 않게 썰려면 소금 냉수에 20~30분 담가

△두부를 부서지지 않게 썰는법 = 풍부한 단백질공급원인 두부를 많이 먹게 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좋은 두부일수록 잘부서져서 모양이 망가뜨려지기 쉽다. 이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맛도 좋고 보기좋은 두부요리를 즐길 수 있다.

두부를 소금냉수에 20~30분정도 담갔다가 꺼내 칼로 자르면 마치 목을 자르는 것처럼 부서지지 않고 자를 수

있다.

소금은 두부의 조직을 단단하게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창문·자동차 유리의 성에는 소금주머니를 만들어 닦아내

△자동차유리의 성에제거 =겨울에 접어들어 창문이나 자동차 유리에 성애가 끼면 시야가 가려답답하다. 이때는 부드러운 헝겊에 소금을 넣은주머니로 성애를 닦아내면 손쉽게 제거될뿐 아니라 그 후에도 성애가 잘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금이 수분의 어는 점을 낮추는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웬만큼 차가워져서는 얼지 않기 때문이다.